



4면

사라진 도시 성벽, 가장 복원으로 되찾아

전주매일

2026년 2월 26일 목요일 (음 1월 10일) 제392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주 도심에 내려앉은 안개



25일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서 바라본 전주시 전경이 안개로 가득 쌓여 있다.

(사진=뉴스시스 제공)

벤처의 불모지 전북

'하이퍼 창업도시' 선언

김관영 도지사, '1:10:100' 목표 제시... 유니콘 1개·상장사 10개 육성
전북 벤처펀드 1조 시대 기반... 초공간·초연결·초가속 세 축 구체화

전북특별자치도가 벤처 투자 기반이 취약한 지역이라는 한계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하이퍼 창업도시'로의 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5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0년까지 유니콘 기업 1개, 2029년까지 상장사 10개, 2028년까지 TIPS 기업 100개를 육성하는 '1:10:100' 목표를 제시했다. <관련사진 3면>

이번 비전은 단순한 창업 지원 확대를 넘어 창업 생태계의 구조적 혁신을 겨냥한다.

도는 △유니콘 1개 △상장사 10개 △TIPS 기업 100개라는 구체적 성과 지표를 통해 창업 단계부터 성장·회수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전략은 비수도권 최대 규모인 '전북 벤처펀드 1조 원 시대' 개막을 기반으로 한다. 수도권 중심 투자 구조 속에서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극복하고, 민간 자본 중심의 투자회수·재투자 선순환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이 강조됐다. 전북이 제시한 '하이퍼' 비전은 초공간·초연결·초가속의 세 축으로 구체화된다.

초공간 전략은 전북 전역을 하나의 창업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2028년까지 35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해 지역 창업의 랜드마크로 육성하고, 전주·익산·군산으로 이어지는 '스타트업 키움 공간'을 권역별 거점으로 확대한다.

또한 14개 시군 지원 플랫폼을 통합하는 AI 기반 창업지원 서비스도 연내 가동해 자본·공간·컨설팅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지능형 생태계를 구축한다.

초연결 전략은 글로벌 창업 생태계와의 접점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둔다.

비수도권 최초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기반으로 2027년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해외 창업 인재의 정착 지원과 TIPS 연계를 통해

국제 창업 허브로의 도약을 모색한다. 초기화 전략은 성장 단계 기업의 수도권 진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전북형 TIPS 트랙을 통해 피지컬 AI 특화 육성과 대·중견기업 협력 모델을 운영하고, AFTER TIPS 펀드로 후속 투자 공백을 최소화한다. 공공실증부터 혁신제품 지정, 공공 구매까지 이어지는 '공공실증 하이패스'도 도입해 기술 사업화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도는 투자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5,000억원 규모 '유니콘 엔진 펀드'를 조성해 유망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IPO 성과가 우수한 벤처캐피탈에 차기 펀드 결성 우선권을 부여하는 '펀드결성 프리패스 티켓' 제도를 도입해 투자 시장의 경쟁력과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에서 시작된 작은 아이디어가 세계를 흔드는 유니콘으로 성장할 때까지 전북이 멈추지 않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 재생에너지 중추적 설계 '주목'

민주 이원택 의원, 2차정부 시절 청와대서 새만금 관련 업무 추진
해상 풍력·수상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정책 수립·적극 반영



이원택 의원은 2차정부 시절 청와대 근무시절 청사진을 마련해 시행하면서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도민들은 관광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의원은 지난 30여년 간 외발적 발전에 의존한 정책을 내발적 발전으로 전환해 삼성과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광활하고 원대한 천혜자연의 조건을 갖춘 새만금에 스스로 찾아오는 역발상을 제안해 관심을 끌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발전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청와대 근무 시절 계획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바탕으로 먹거리 창출과 함께 전북 발전에 원동력을 삼아야 한다는 역할론을 꾸준히 주장해 와 조선시대 중기 실학사상의 실사구시와 같은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이를 적극 펼치고 있는 점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앞으로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2035년 유럽과

것으로 보여 인력충출은 물론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 발전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또한 최근 개통한 전주와 새만금 고속도로 역시 이 의원이 청와대 근무시절 청사진을 마련해 시행하면서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도민들은 관광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원상씨(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는 "지난 30여년간 역대 지방정부에서 대기업 유치를 주장했으나 제대로 이뤄질 경우는 한번도 보지 못한 만큼 확대경영 시대를 맞아 새만금의 해상 풍력과 수상 태양광과 같은 천혜의 친환경자원을 활용하면 이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전북 발전의 계기와 함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다"며 "현대차그룹이 10조원대 투자한다는 소식이 모처럼 들려와 조만간 대한민국의 대표할 수 있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대자동차그룹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이 새만금 지구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최적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전북의 산업지도를 새로 그리고 도민의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를 확실히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권희성기자

부산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 반대"에 도내 정치권 '반발'

김관영 도지사 "부산 아닌 국가 금융경쟁력 확대 위한 전략" 도의회 균형발전특위 "서울 등 각자 장점 바탕으로 역할 분담"

부산시가 최근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을 두고 "나눠먹기식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도내 정치권이 반발에 나섰다.

먼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은 지역 간 기능 분산이 아닌 국가 금융 경쟁력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정책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해당 주장에 대해 국가 금융정책의 방향을 지역 경쟁의 시각

에서 해석한 것으로 정책 취지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이 아니라 기능 전문화를 통한 금융 생태계 고도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과 전북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 금융 경쟁력을 함께 높여야 할 동반자"라며 "전북은 협력과 연대의 길 위에서 서울과 부산과 함께 금융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서난이)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주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에 대한 반대 움직임은 국가균형발전

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전북이 추진하는 금융중심지는 기존 금융 거점과 경쟁하거나 기능을 빼앗는 구조가 아니라, 서울·부산·전북이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상생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나눠먹기식 정책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불이해이자 기존 거점의 기득권을 앞세운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만호 기자



군산의 매력, 근대 역사의 향기를 느끼고 산책하며 마음의 여유를 더해요

군산시 동국사길 16

GUNNSAN CITY